



발행 : 정진흥 | 발행일 : 2024.02.19.(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7.7조 벌어진 일본 먹튀자본, 노동자를 책임져라 한국 옵티칼하이테크 강제집행, 함께 저지!



일본 니토그룹의 계열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무상 토지임대,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20년 간 7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는 지난 해 공장 화재사고로 공장 설비가 전소한 것을 계기로 공장을 폐쇄하고 남아있는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고 이에 반발한 11명의 조합원들이 복직을 위해 지금까지 투쟁중이다.

지난 2월 16일 오전 8시 30분,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예고된 한국 옵티칼하이테크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금강지회 외 13개 지회 및 지부 집행위 약 50여명 과 함께 강제집행 반대투쟁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강제집행이었으나, 경찰은 현장에 8시 경 부터 배치되기 시작, 청산인¹⁾은 9시, 집

행관²⁾은 9시 40분부터 강제집행 고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망루 농성과 조계종 스님들의 현장 법회,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 1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집행 시도를 막아내며 오늘로 40일차를 맞은 고공농성을 사수하고 고용승계를 이뤄내자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1) 청산인 : 청산 공고가 끝나는 시점까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이임하는 자
2) 집행관 : 국가의 집행기관으로 채무자 등에게 강제집행을 할 권한과 직책을 가진 자



이날 투쟁은 박정혜, 소현숙 동지를 제외한 1천여명의 노동자/시민들이 운집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어지면서 10시 10분경, 청산인과 법원 집행관이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종적으로 집행관과 청산인이 철수함을 확인한 뒤, 10시 25분경 고공농성장 앞에서 정리 집회를 열고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이어가자고 결의했다. 이에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일본 먹튀 자본이 이곳에서 수조원 이상의 이익을 거둬간 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박탈해갔다”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고용승계뿐이다.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들과 함께 반복되는 먹튀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경찰이 철수할 때까지 결의대회를 계속할 계획이며, 2월 23일(금)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2024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전부 개시합니다

선전의 모든 것!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전영상 / 디자인 / 교육 문의
010-4494-1408 / 이형석 선전부장

조망한울분회 노조파괴 부당집단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결 촉구!

금속노조 대구경북권 결의대회

경북지노위는
10명 조합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항쟁배임 범죄자
기정도 대표 구속하라

노조탄압 막아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2024.02.22.THU
15: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반노동반민주노동계의
윤석열정권타도
총선투쟁승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승리

기필코 쟁취!

민주노총2024 투쟁 선포대회

2024년 2월 23일(금) 오후 2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영남권 집중)
서울 동화면세점 앞(전국집중),

민주노총